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등 -

2026. 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출장 성과 / 3

III. 주요 활동 / 5

- 1. OECD 공공재정포럼 참석 5
- 2. 주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9
- 2.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11

※ 별첨자료

- [별첨 1]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발표문 29
- [별첨 2]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가자 37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OECD 공공재정포럼 및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2 출장 지역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3 출장 기간

- 2026.5.26.(화)~5.30(토), 3박 5일

4 출장단

- 단 장 : 정지은(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 단 원
 - 강은정(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보)
 - 황소정(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보)

5

출장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5.26(화)	출발 (인천 → 파리)
5.27(수)	공공재정포럼(OECD Forum on Restoring Public Finances) 참석 주 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5.28.(목)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5.29(금)	귀국 (파리 → 인천)
5.30(토)	-

II. 출장 성과

- 글로벌 재정 현안 대응을 위한 OECD 국가의 재정당국 및 전문기관과의 경험 공유 및 자료 수집
 -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단기·장기적 재정지출 압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OECD 주요국 재정 장관 및 고위 관료 등과 함께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및 재정 절감 전략을 논의
 - 복잡한 공공재정 이슈를 시민과 언론에 알기 쉽게 소통함으로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디어 활용 사례 및 OECD의 새로운 재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향을 파악
 - 재정 분석 내 AI 활용 트렌드를 확인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 확인
- 의회의 재정 책임성을 지원하는 사례로써 한국 NABO의 역할을 소개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중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세션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정지은 경제분석국장이 직접 주제 발표자로 참여
 - 현재 한국의 재정 압박 배경과 함께 현행 2단계 상향식 예산 심의 구조의 한계와 함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NABO의 독립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발표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참석자들과의 협력 강화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OECD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브라질, 대만 등 非 OECD 국가의

- 관련 기관에서 약 117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
- 회의 의장인 공동 의장인 마크 해들리(미 CBO부처장)을 비롯하여
주요 재정 분석 핵심 인사들과의 교류
 - 기존 참석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예정처가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한 기존의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혀, 호주 및 영국, 핀란드 등 주요 대표단과도 교류

III. 주요 활동

1

공공재정포럼(OECD Forum on Restoring Public Finances) 참석

가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09:00
- 장소: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주: 공공재정포럼 참석 모습

나 주요 내용

- (개회 및 배경) OECD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 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주제의 장관급 원탁회의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원 전략, 공공지지 확보 방안, 재정 개혁 사례를 공유하는 목적
 -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OECD 회원국의 공공 부채는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74%에서 현재 약 113%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낮은 경제성장률, 인구 고령화, 국방비 증액과 같은 새로운 지출 압박이 더해지며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3~2027년 기초 수지 개선 궤도에 있는 OECD 국가는 약 절반에 불과한 상황
 - 포럼 당일 OECD에서 「Restoring Public Finances」, 「The People and the Budget」 두 편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본 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함
 - 「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재정 확보에 관한 노력(보건 지출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The People and the Budget」 보고서는 재정 통합 노력이 지속을 위한 공공 지지의 확보 방안을 4개의 영역으로 제시
 - (Kelly Kinneen, 미국 OMB 예산 부국장) 민주주의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임을 강조하며, 재정 문제는 시민과 선출직 대표의 이해와 참여가 핵심이 되므로 예산 당국자들이 공공 재정 이해도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Elsa Pilichowsk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① 선출직 의원의 예산 이해도 제고, ② 재정 전문가의 적극적 공공 소통 ③ 시민 참여 확대, ④ 독립 재정기관의 역할 강화로 제시

□ (장관급 원탁회의) 국가별 재정 건전화 사례 소개와 지출 통제 전략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공유하며 중장기 재정 규율의 필요성 강조

- 캐나다 (Ryan Tumble, 재무부 의회 차관) 캐나다의 2025년 예산은 “덜 쓰고 더 투자한다(spend less, invest more)”의 원칙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자본예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운영 지출과 자본 투자를 구분하고, 예산 주기를 봄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
 - 포괄적 지출 검토를 통해 향후 5년간 600억 달러(캐나다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인력 감축은 자연 감소 방식으로 한정
 - 주택, 인프라, 국방, 혁신, 생산성 등에 집중 투자하며, IMF는 캐나다를 G7 국가 중 가장 재정건전성이 강한 국가로 평가
- 그리스 (Athanasios Petralias, 재무부 차관)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2025년 GDP 대비 1.7%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29년 GDP 대비 부채 비율 120% 미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세 탈루 축소 전략 : 전자결제 의무화, POS 단말기 · 세무 시스템 · 국세청 실시간 연동, MyData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 도입, 현금 결제 500유로 초과 금지, 전자 근로 카드 도입 등을 통해 GDP 대비 3% 이상 추가 세수 확보
 - 그 밖에 세율 인하, 투자 확대, 선거 공약 비용 추계 의무화, 성공 기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도입, 국가 재정 준칙 법제화 추진 등
- 아일랜드 (Jack Chambers, 공공지출부 장관) 아일랜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지난 5년(2019~2024년) 9.4%에서 향후 6%로 억제하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
 - 강화된 지출 통제 및 재정 규율 체계 도입 : 지출 통제 및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 신설, 효율성 배당 제도, 국가개발계획 기반 자본투자 우선순위화, 성과 예산제, 법인세 집중 리스크 대응해 장기 기금 조성 등

- 포르투갈 (Joaquim Miranda Sarmiento, 재무부 장관) 포르투갈은 2010~2011년 트로이카(IMF, EU, ECB)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강도 높은 재정 조정을 단행하였음
 - 2010년 5월, 1차 재정 조정을 통해,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인상, 연금 · 공무원 급여 삭감, 공공투자 축소 등을 단행
 - 재정적자를 2010년 10%에서 2015년 3%로 축소하였고, 2019년 포르투갈 역사상 최초 재정 흑자를 달성, 팬데믹 이후 2023~2025년 3년 연속 흑자 기록, 수출 비중은 2010년 GDP 28%에서 2015년 45%로 급증, 2012년 10월 국채 시장에 조기 복귀하며 2014년 5월 트로이카 프로그램 종료
 - 다만, 2026년에는 2월 폭풍 피해, 에너지 위기, EU 차세대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의 적자 가능성 있으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Lucy Rigby, 재무부 정무수석 차관) 영국은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누적,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고령화와 국방비 증가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이중재정준칙(Dual Fiscal Rules)을 핵심 대응 전략의 축으로 제시
 - 안정 준칙(Stability Rule) : 2030년까지 경상 수지 균형 달성, 일상 지출은 세수로 충당하고 차입은 투자 목적으로만 제한
 - 투자 준칙(Investment Rule) : 예측 기간 3년차까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낮추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 투자는 보호
 - 또한 2028~2029년 부처 효율화를 통해 14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 절감, 32억 5,000만 파운드 규모의 전환 기금을 통해 공공 부문 디지털 개혁 및 AI 도입

- 아르헨티나 (Carlos Jorge Guberman, 재무부 차관) 아르헨티나는 2023년 신정부 취임 이후 공공사업과 행정 지출의 삭감을 중심으로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가속화 등 경제 안정화 진행 중으로 평가
 - 재정 건전화의 핵심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

2 주 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2:00
- 장소 : OECD 인근 식당 (Brach Paris, Franc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황영준 부이사관 (OECD 파견),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백태웅 특명전권대사, 최승훈 1등서기관



주: 주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및 오찬 기념 촬영

나 **주요 내용**

(1) 주 OECD 한국 대표부의 역할

□ OECD 개황 및 대표부의 역할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로, 주 OECD 대표부는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공조를 담당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 중임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의 주요 추진 업무

-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을 활용, 세계경제동향 신속과악 및 대응,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 및 사전 대처, 교육·고용·복지·여성 등 사회분야 모범 사례 전파, 우리나라 인력의 사무국 진출 지원 및 한-OECD 협력 사업 추진 등

(2) 면담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역할 소개 및 경제 분석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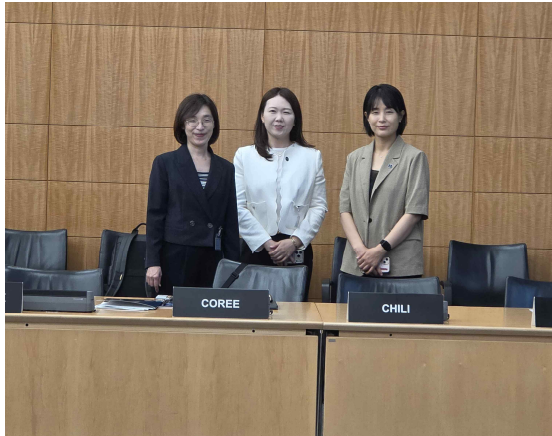
- NABO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입법부 예산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모니터링과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 분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
- OECD 사무국이 발간하는 다양한 국가별 경제 정책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향후 실무적인 정보 교류 및 데이터 협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 논의

3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 장소 : 파리 OECD 본부
2, rue André-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아젠다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 참석자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38개국 3개 기구 117여명 참석





주: OECD 회의장(앞페이지)과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발표 모습, 기타 회의장 및
인적 교류 등



주: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다 주요 아젠다(Agenda)

□ 제1세션: 현안 및 향후 과제

- OECD 국가들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생활비 부담 확대 등 단기적 재정 압력과 함께 보건·국방·기후재난 대응 등 장기적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현황
- 의회예산기구(PBO)와 독립재정기구(IFI)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단기적 재정 현안 뿐 아니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

□ 제2세션: 재정 이해도 제고 및 커뮤니케이션의 간소화

-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OECD 재정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재정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됨
- 또한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
-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제 및 재정 정보를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혁신적 사례를 공유

□ 제3세션: 예산 및 재정 분석에서의 AI 사용

- AI는 예산·재정 분석 업무의 속도,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 업무 자동화와 법안 분석 지원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OECD는 독립재정기구의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각 기관의 도입 현황과 활용 사례를 공유

□ 제4세션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 의회가 책임있는 재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산 총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
- OECD는 재정책임성지수를 소개하며,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고, 핀란드의 재정프레임워크 개혁 사례와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사례를 각각 발표

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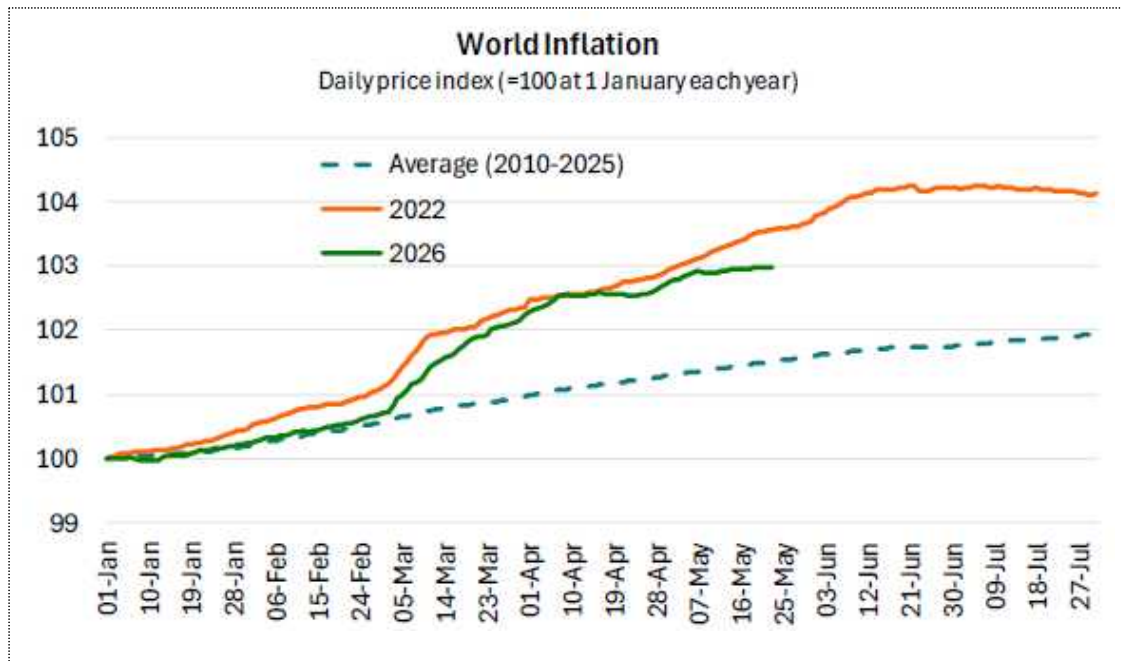
[세션 1] 현안 및 향후 과제

1. 중동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Ben Westmore, Head of Short-term outlook, Macroeconomic Policy and Research Division, Economics Department, OECD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에너지 인프라 피해로 2~4월 사이 글로벌 석유 공급 13.5% 감소, 중동 주요 9개 공항의 항공편도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 중
- 2026년 2월 27일 대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에너지) 아시아 천연가스 약 80% ↑, WTI 원유 약 50% ↑, 유럽 천연가스 약 45% ↑, 브렌트유 약 35% ↑
 - (비에너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
- 페르시아만 에너지 의존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태국·한국·인도·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의존도가 특히 높음(총 생산 대비 약 3~5%)
 - 섹터별로는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화학, 정제 부문이 OECD 국가 대비 노출도가 가장 높음
- MIT 'Price Stats 프로젝트' 일일 물가 지수에 따르면, 분쟁 확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2010~2025년 평균을 상회 하기 시작하였으며,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2022년보다 가파르게 나타남
 - 또한 미국·영국·유로존에서 1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며,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연 4% 초과 응답 비율이 2~3월 사이 5~7%p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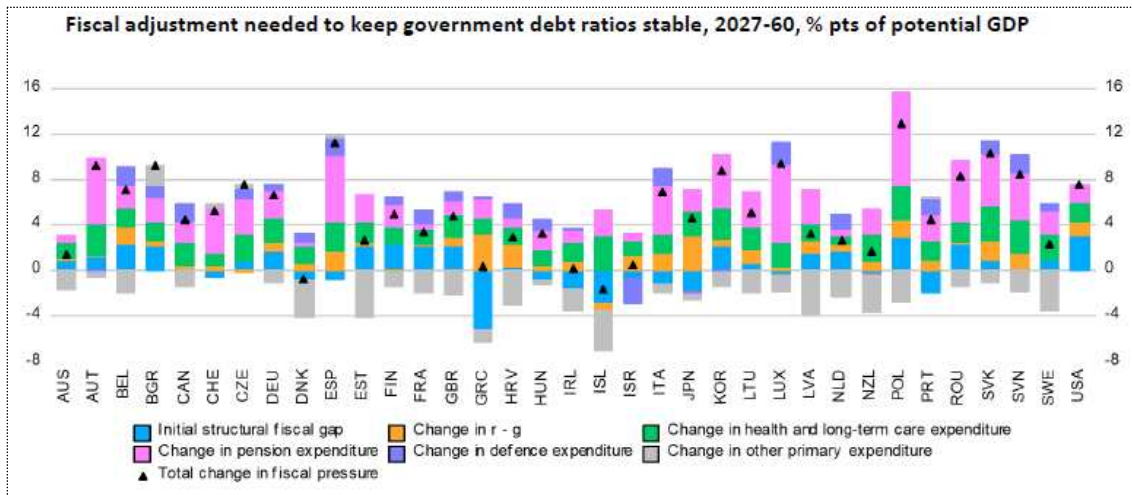
[세계 인플레이션]



자료: OECD

-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대부분이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치를 시행
 - OECD 기준 한시적+타겟형 재정 지원의 비율이 약 40%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소폭 높음
 - 대다수의 조치는 에너지 가격 직접 인하(세금 감면) 방식이며, 현금 이전 방식은 기존 급여에 일괄 추가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OECD 장기 경제 모델로 정부 부채 비율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재정을 조정하지 않고 현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OECD 국가의 순정부 부채는 2027~2045년 사이 GDP 대비 약 45%p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 부채 비율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필요 재정조정 규모]



자료: OECD

2. 호주 재정 현황 및 PBO의 역할

: Sam Reinhardt, Paliamentary Budget Officer, Australia

- 호주 재정의 구조적 재정 적자는 주로 경기 침체(1980~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COVID) 이후 발생하였으며, 위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정부 부채의 수준이 결정됨
- 주요 지출 증가 요인은 의료급여(Medicare), 노인돌봄(인구 고령화), 장애인지원(NDIS), 보육 등임
 - 기후 적응 비용(재난 복구 지급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세입 측면에서는 전기차 전환으로 연료소비세 수입이 감소, 소득세 과세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세수 과대 계상 문제가 구조적 위험 요인
- 호주 PBO는 2012년 설립 이후 ① 중기 재정 전망, ② 선거 공약 비용 추계, ③ 자체 연구 및 공개 모델 제공('Build Your Own Budget'), ④ 국가 재정 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기재정전망 : 기준선 대비 시나리오 분석 포함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험 요인을 평가

- 선거 공약 비용 추계 : 직전 선거에서 약 2,600건의 추계를 수행, 모든 연방 부처의 모델과 데이터 접근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 온라인 기반 공개 모델 : 변수(이민, 생산성, 금리, 이주 등) 조정이 가능한 공개 시뮬레이터로 언론인·야당 보좌관·정부 자문 등 광범위하게 활용 중
- 주(State) 재정 및 전국 재정 전망 :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연구

[세션 2] 공공의 이해 증진 - 소통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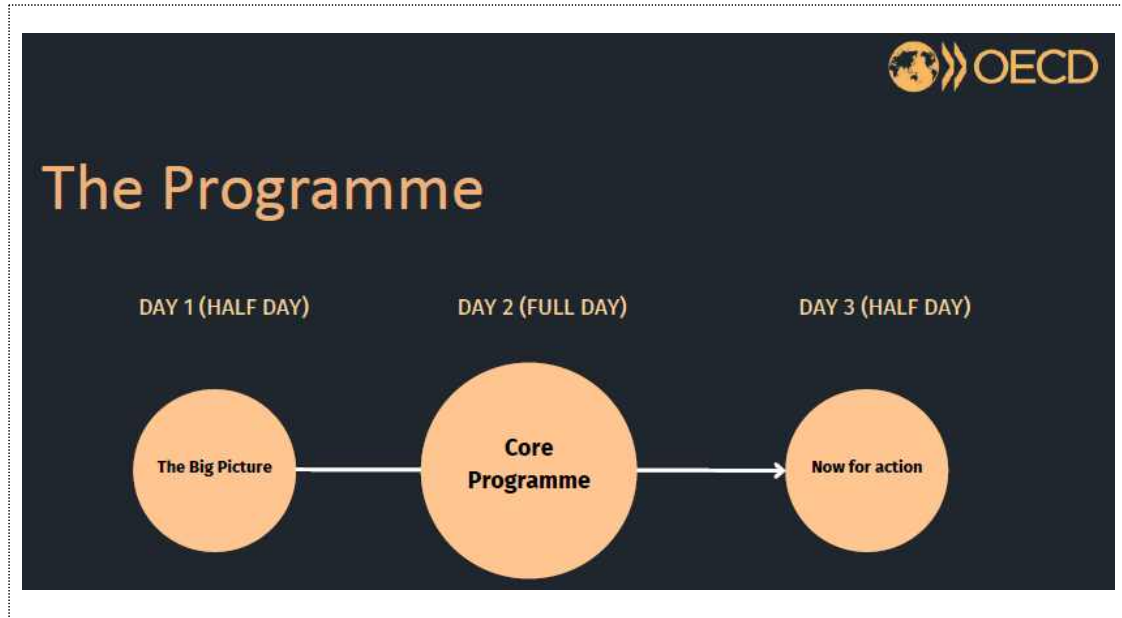
1. 정치인 대상 재정 마스터클래스 설계

: Alex Knight, Head of Financial Scrutiny Unit, House of Commons, United Kingdom

- 정치인들이 재정 정책을 유권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간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설계를 제안
 -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과 선거 주기를 넘어서는 큰 그림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프로그램 핵심 설계 원칙은 ① 고영향 포맷 활용, ② 정치적 연관성을 강조 ③ 심리적 안정감 확보, ④ 네트워킹 가치 강조 등
 - 고영향 포맷 활용 :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포맷(사례연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활용
 - 정치적 연관성 강조 : 재정 정책을 연금, 생활비, 모기지 비용 등 유권자의 일상적 관심사와 명확히 연결하여, 정치인의 지역 주민과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
 - 심리적 안정감 확보 : 소속 의회 외부 정치적 중립 환경에서 기초 질문들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네트워킹 가치 강조 : 국제 전문가, 동료 정치인과의 교류 및 OECD 인증 부여로 참여 동기를 자극
- 프로그램은 3일 구성으로, 1일 차는 공공재정 기초(재정 현황 이해), 2일 차는 건전 재정 관리 원칙과 정치 현실의 연계, 3일 차는 예산 시나리오 실습, 선거구민 소통 적용 등을 교육

- 옥스퍼드 대학교 주관으로 2027년 봄 첫 마스터클래스 개최가 확정
- 주요 대상은 재정·예산 위원회 소속 의원

[재정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자료: OECD

2. 재정 리터러시 실험 결과

: Michael McMahon,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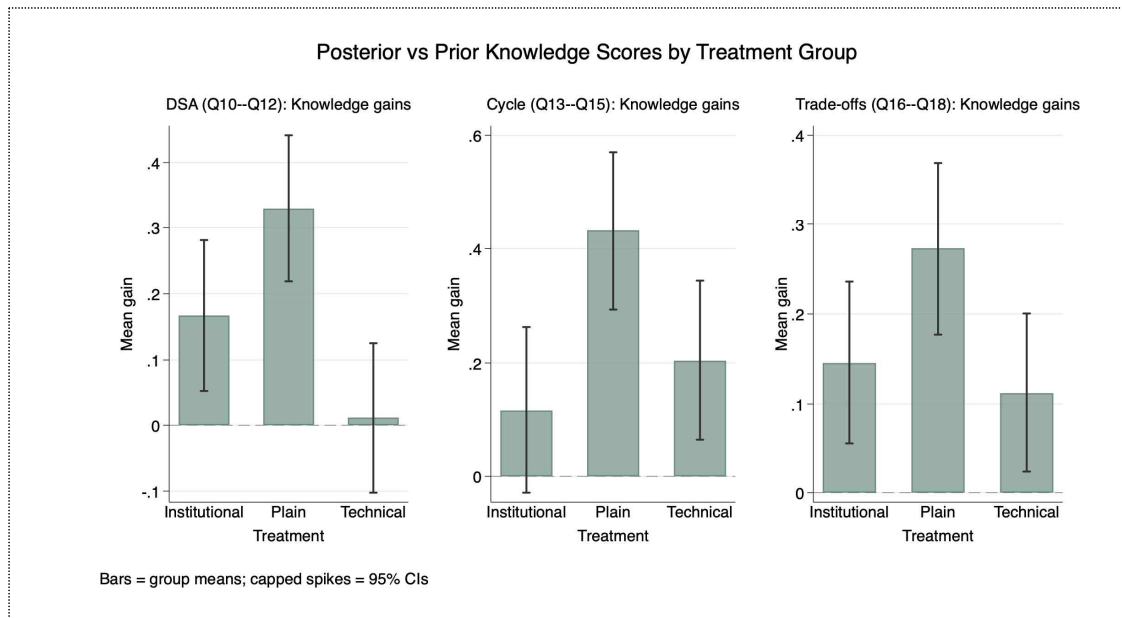
- (연구 질문)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이 재정 문제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실험 설계) 영국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시청 직후와 8주 후 재정 이해도를 측정
 - 기관 설명형(Institutional) : 예산책임청(OBR), 영국 재무장관 등 제도적 배경 중심의 설명
 - 평이한 언어형(Plain) : 동일한 내용을 일반인의 언어로 재서술
 - 기술적 언어형(Technical) : IMF, OECD, OBR 공식 기관의 전문 용어 그대로 사용

○ (주요 결과)

- 시청 직후 : 평이한 언어형에서 가장 큰 지식 향상
- 8주 후 : 기술적 언어형 응답자는 시청 전보다 오히려 지식이 낮아진 반면, 평이한 언어형과 기관 설명형은 일부 지식을 유지
- 뇌의 언어 처리 분석에서도 기술적 언어는 처리 부담이 현저히 높아 학습과 기억에 불리함

- 재정 관련 세 개의 문항 모두 정답자는 국방비 증액, 인프라 지출 지지, 복지 삭감, 연금 확대 반대 성향이 높게 나타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설득이다” (Tehcnocrats should aim to communicate to inform, not to persuade - and to inform is to persuade.)는 점을 확인

[유형별 영상 시청 후 재정 지식 점수의 증가]



자료: OECD

3.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재정 대중화 사례 (콜롬비아)

: Maria Camila Gonzalez and Valerie Cifuentes, Co-founders of Economia para la pipol, Colombia

- 2021년 세제 개혁 반대 시위를 계기로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 정보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언론인들이 경제 해설 미디어 플랫폼을 창설
- 콘텐츠 전략은 복잡한 재정 개념을 일상 언어로 번역하고, 각종 밈(meme), 질문 형식의 제목,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 최근 5년 간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구축(주요 연령대 18~55세), 80개 이상 기관과 협업, 다수의 저널리즘상 수상 등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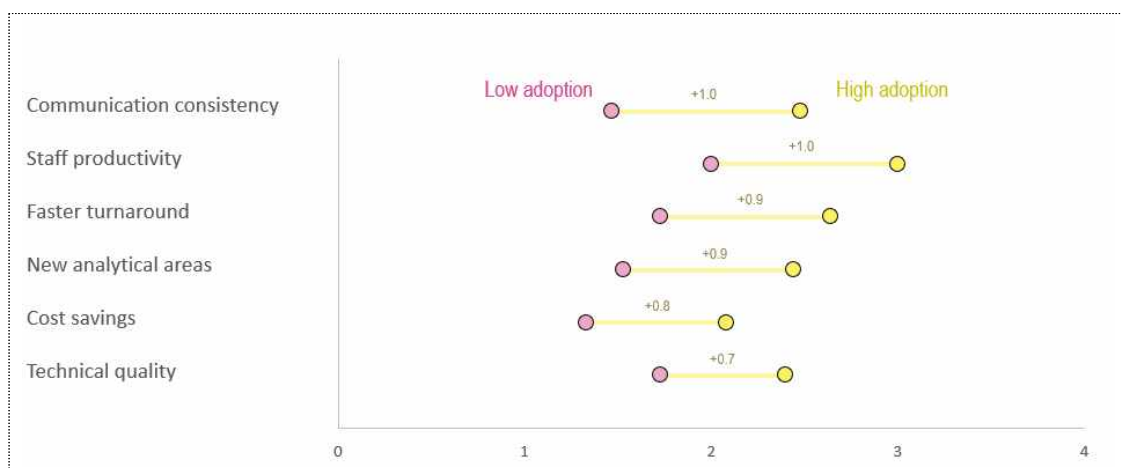
[세션 3] 예산 및 재정 분석에서의 AI 사용

<Eddie Casey, Senior Economist,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 IFI(국제재정기관) 대상 AI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도입 현황·영향도·장애 요인·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향후 AI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논의
-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무료 번들 도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며, 주요 용도는 문서 초안 작성·편집 지원 및 코딩 보조에 집중되어 있음
 - AI 문헌 검토 시 출처 날조(hallucination) 문제가 빈번히 발생
 - 거시 예측, 재정 예측, 정책 비용 추정 등 핵심 분석 업무에의 활용은 저조
- **(업무 영향도)** 업무 영향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편집·행정 업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가 보고됨
 - AI에 대한 사후 검증 작업 부담이 크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시간 절감 효과)** 업무 시간 배분(초안 40%, 핵심 분석 30%, 루틴 업무 30%)을 기준으로 주당 최대 10~11시간의 절감이 가능

- AI 고채택 기관 vs. 저채택 기관 비교시, 고채택 기관은 커뮤니케이션 일관성, 산출물 증가, 빠른 납기, 신규 분석 영역의 확장 등에서 큰 성과가 보고됨
- **(AI 도입의 장애 요인)** 기관들이 AI 도입 확대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각(hallucination), 블랙박스 불투명성, 예산 제약, 조달 규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AI 활용도에 따른 효과]



자료: OECD

- **(AI 거버넌스 및 공시 정책)** 대다수 기관은 공식적인 AI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IT 부서 지침에 위임하거나 정책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AI 활용 사례 연구)** 분석 자동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고급 정보 수집 등 AI가 대용량·반복 업무에서 효율을 발휘
 - 분석 자동화 : 북아일랜드 재정위원회, 태국 의회예산처, 호주 PBO 등에서 미래 재정 부담 가능성 있는 정책 공약 식별, 세입·세출 데이터 이상치 자동 탐지 등 활용
 - 커뮤니케이션 강화 : 슬로바키아, 호주, 아일랜드 등 보고서 및 보도자료 초안 작성으로 활용
 - 고급 정보 수집 : 스페인, 캐나다 등 회의록 스크래핑, 뉴스 기사 추출 분석 등 대용량 데이터 분석 수행

[세션 4]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1. OECD 의회와 재정 책임성

: Kaitlyn Vanderwees, Policy Analyst,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 OECD는 의회 재정 책임 지수(Fiscal Responsibility Index)를 소개
 - 2023년 17개국 모범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5개 축(Pillar)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각 축당 최대 1점, 총 5점 만점의 국가별 점수를 산출

[의회 재정책임성 지수]



자료: OECD

- 전반적으로 입법부는 예산 승인 단계에서는 강하지만, 재정 우선순위 설정 초기 단계와 예산 집행 및 감사 단계에서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5개의 축은 다음과 같음
 - 재정 책임 : 재정 프레임워크 감독, 장기 지속가능성, 사전예산 토론, 하향식 예산 편성
 - 예산 승인 : 적시 승인, 완전한 예산 문서, 수정 권한 등

- 예산 집행 감독 : 추경 승인, 감사위원회, 중간 재정보고 검토 등
- 위원회 조직 : 예산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공공 참여 투명성
- 분석 역량 : 독립 재정기관, 전문 분석 인력 등
- 다만 지수는 실제 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핀란드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 Jenni Jaakkola, Secretary General, Economic Policy Council, Finland

- 핀란드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5년 20%에서 현재 약 80%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수년 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초 발효된 신 재정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장기 재정 목표 : 순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GDP 대비 60% 이하, 궁극적으로 40% 이하 감축
 - 명목 재정수지 목표 : 각 선거 임기 마지막 연도 목표 + 이후 8년의 장기 목표를 정부가 설정
 - 의회 재정정책 실무그룹 : 각 정당 의원 2명씩 참여하여, 교차 정당 공약 확보 및 선거 입기를 초월한 장기 공약 확보가 목적
 -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 : 2012년 설립된 경제정책위원회가 공식 IFI 지위를 부여. 재정 준칙 준수에 대한 평가는 종합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미달 시 IFI가 시정 조치와 일정을 제시하면 정부가 2개월 내 이행 또는 설명의 의무를 가짐

3.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과 역할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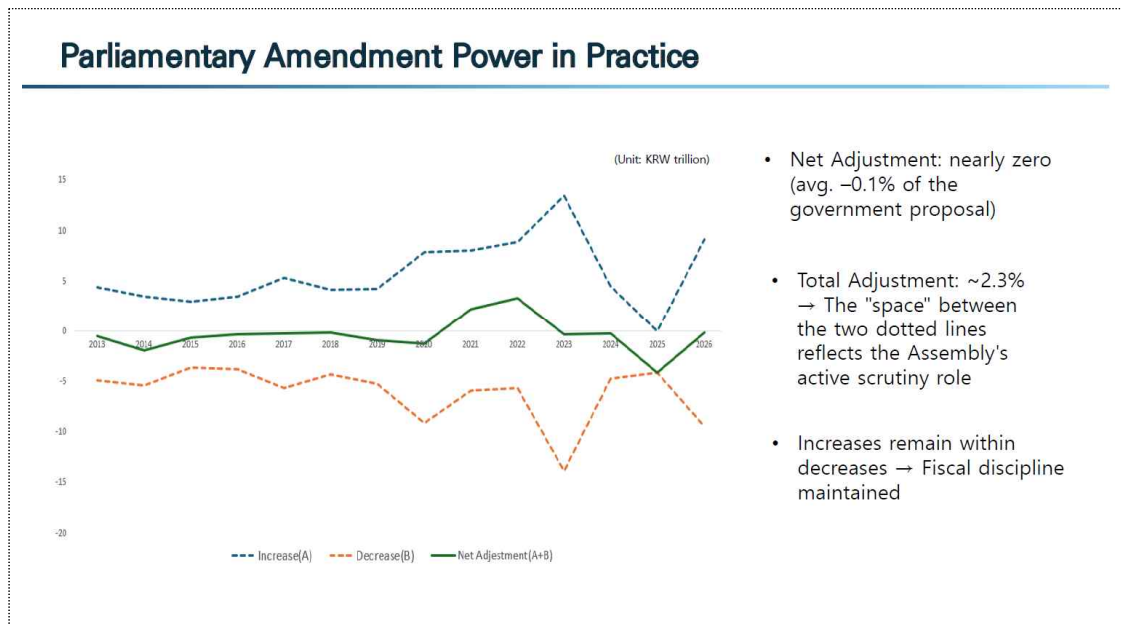
※ 발표자료 별첨

-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주제로, 한국의 재정 압박 요인과 국회의 예산 심의 구조,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
- (재정 압박 배경)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NABO는 2029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도적 특징)** 헌법상 국회는 지출 삭감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지출 증액, 신규 항목 추가는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예산 심사 기간은 90일이고, 2단계의 상향식 심의 구조를 거치게 됨
 - 2단계 상향식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SCBA)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는 순서
 -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세비복을 설치하려면 소관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 다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가 미시적 조정 위주로, 중장기 거시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 과제에 해당
- 국회는 매년 실질적 심의와 조정을 수행하나, 순조정 규모는 소규모이며, 증액은 대체로 삭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예산 심의에서의 국회 수정권 행사 현황]



자료: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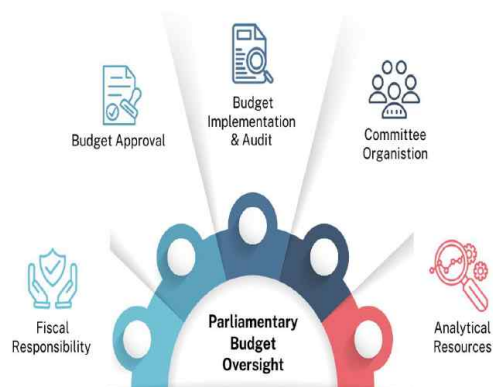
- 한국의 재정책임성 지수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OECD 예비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재정책임성 축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확인
 - － 하향식 심의가 부재하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이 원인
- **(개선 방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총재정 규모 및 부처별 지출 한도를 결정한 후 세부 협상 진행하는 하향식 예산 과정으로 전환
- **(NABO의 역할)** 2003년 설립, 현재 1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독립적 거시경제 전망, 법안 비용 추계,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가 재정 책임성과 재정 규율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How parliament can support fiscal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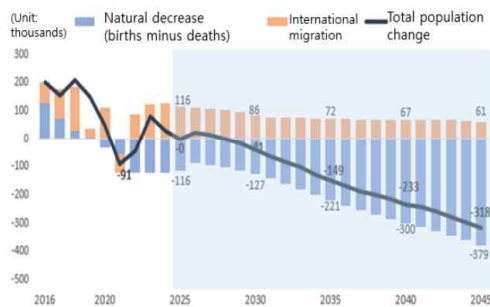
Source: Best Practices for Parliaments in Budgeting, OECD(2022)



Source: Parliaments and fiscal responsibility - Draft OECD Paper(2026)

Why Parliamentary Fiscal Responsibility matters : Fiscal Pres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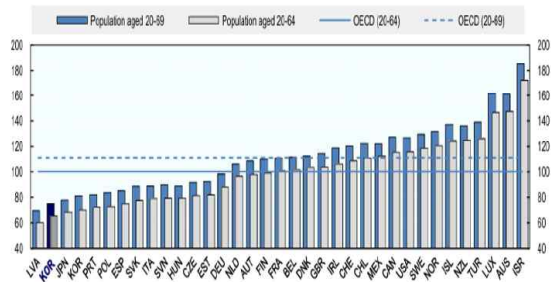
NABO Population Projections (2025–2045)



Sourc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 The fastest-shrinking workforce in the OECD — in just 30 years

A. Population of working age in 2050 (population age 20-64 in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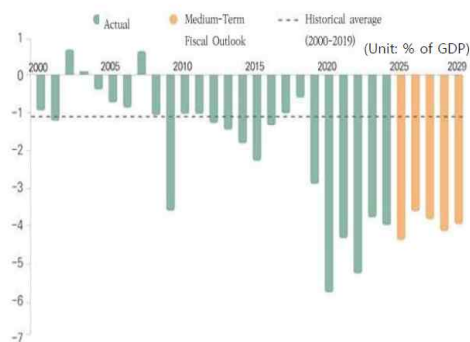


Source: OECD(2018)

Why Parliamentary Fiscal Responsibility matters : Fiscal Pres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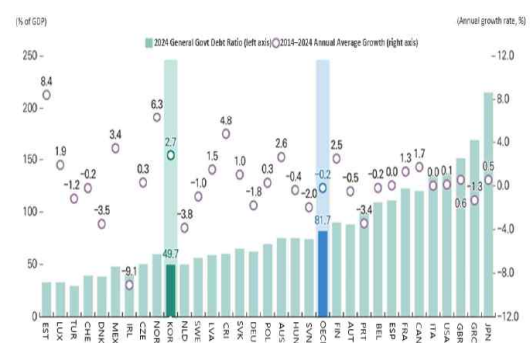
- **Structural fiscal pressure**— not a temporary shock

Managed Fiscal Balance Trends and Outlook



Source: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 2025-2029, NABO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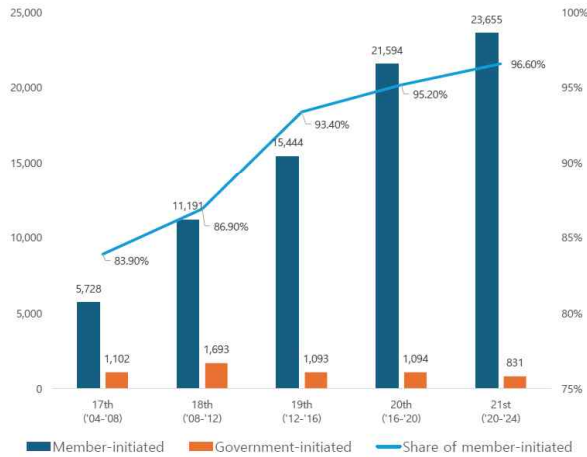
General Government Debt Ratio and Growth Rate in Major OECD Countries (2014–2024 Average)



Source: NABO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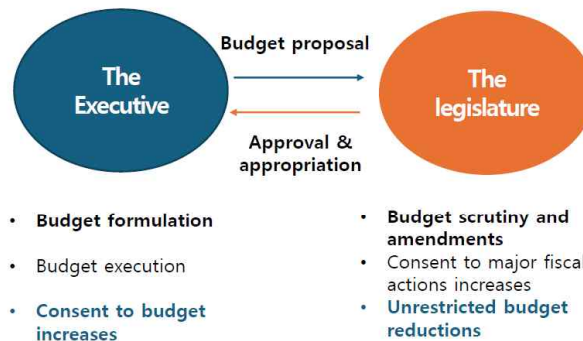
Why it matters : Expanding the Real Powers of the Legislature

Trends in Member-Initiated Bills by Parliamentary Term



- Expanding Legislative Influence
96.6% of bills are member-initiated
- Of the 562 bills passed in 2025, **36.8%** carried **fiscal implications**

Distribution of Fiscal Authority : Korea's Presidential System



• Power to Amend Budget & Constitutional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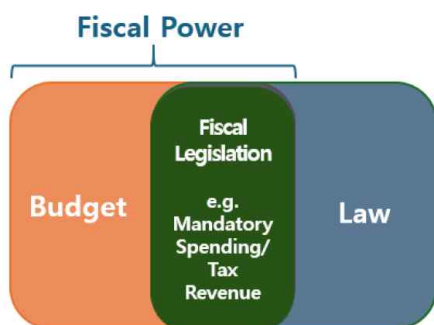
"The National Assembly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budget proposed by the executive; however, any increase or establishment of a new budget item requires the executive's consent."

Two Pillars of Parliamentary Fiscal Power: Budget and Fiscal Legislation

Budget Is Not Enacted as Law

- Budget ≠ Law

"Fiscal Responsibility must extend beyond budgeting to fiscal legislation."



	Budget Authority	Legislative Authority
Initiative	Executive-exclusive	Shared
Amendment	Reductions: free Increases: executive consent required	Unrestricted
Veto & override	No veto mechanism	Presidential veto possible — but overridable
Deadline	constitutional deadline (2 Dec.)	No constitutional deadline

How Korea's Budget Process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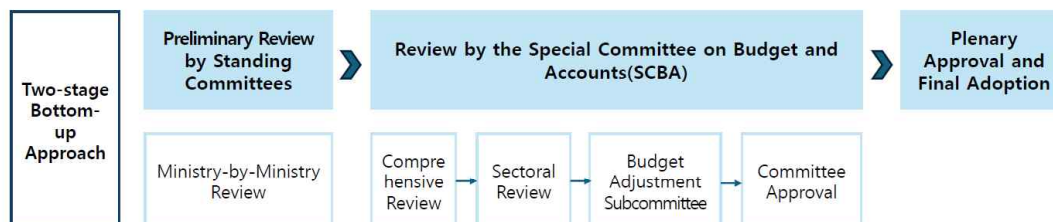
• Timeline



- Statutory review period - 90 days
- Fiscal year starts Jan1 – budget always enacted before FY begins
- **No Top-Down Aggregate Discipline**
- **Limited Institutional Linkage to the Medium-Term Plan**

How Korea's Budget Process Works

• Committee Organization



• Cuts Stick, Increases Need Consent

- Any **increase** to a reduced item or addition of a new budget line requires **standing committee consent**
- **Lack of strategic, macro-level fiscal debate** : **Both**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CBA focus on program- and line-item-level adjus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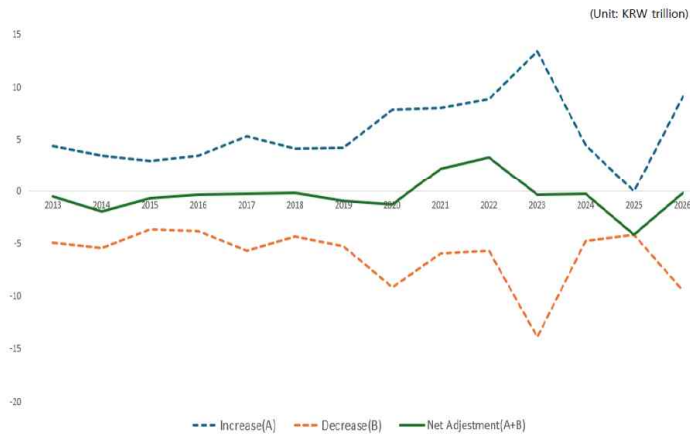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 in Practice

(Unit: KRW trillion)

Fiscal Year	Government Proposal	Increase (A)	Decrease (B)	Net Adjustment (A+B)	Net Adj. Ratio	Total Adjustment (A-B)	Total Adj. Ratio	Final Approved (National Assembly)
2026	728	9.2	-9.4	-0.1	-0.01%	18.6	2.55%	727.9
2025	677.4	0	-4.1	-4.1	-0.61%	4.1	0.61%	673.3
2024	656.9	4.5	-4.7	-0.2	-0.04%	9.2	1.4%	656.6
2023	639	13.5	-13.8	-0.3	-0.05%	27.2	4.26%	638.7
2022	604.4	8.9	-5.6	3.3	0.5%	14.5	2.4%	607.7
2021	555.8	8.1	-5.9	2.2	0.4%	14	2.5%	558
2020	513.5	7.9	-9.1	-1.2	-0.2%	16.9	3.3%	512.3
2019	470.5	4.3	-5.2	-0.9	-0.2%	9.5	2%	469.6
2018	429	4.2	-4.3	-0.1	0%	8.5	2%	428.8
2017	400.7	5.4	-5.6	-0.2	0%	11	2.7%	400.5
2016	386.7	3.5	-3.8	-0.3	-0.1%	7.3	1.9%	386.4
2015	376	3	-3.6	-0.6	-0.2%	6.6	1.8%	375.4
2014	357.7	3.5	-5.4	-1.9	-0.5%	8.9	2.5%	355.8
2013	342.5	4.4	-4.9	-0.5	-0.1%	9.3	2.7%	342

*Source : NABO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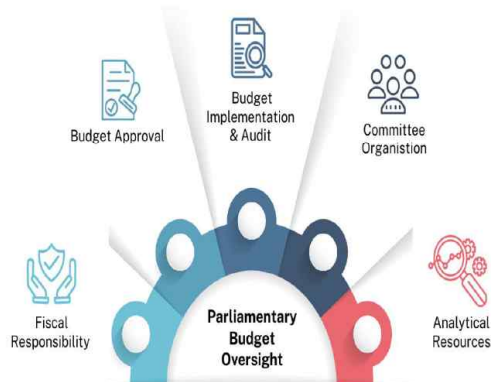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 in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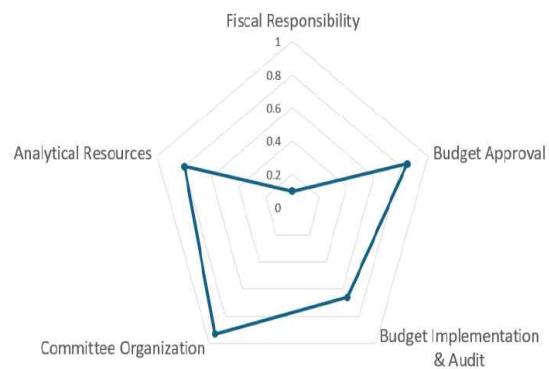
- Net Adjustment: nearly zero (avg. -0.1% of the government proposal)
- Total Adjustment: ~2.3%
→ The "space" between the two dotted lines reflects the Assembly's active scrutiny role
- Increases remain within decreases → Fiscal discipline maintained

Parliament and Fiscal Responsibility Index : Korea

The five pillars of parliamentary budget oversight



Parliament and Fiscal Responsibility Index: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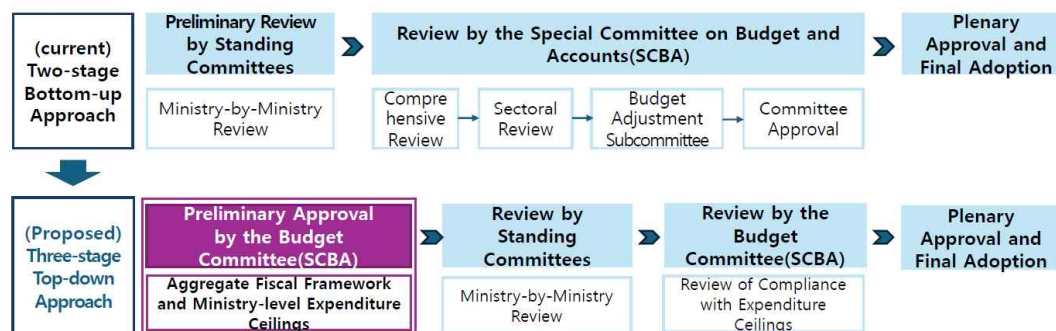
Parliament and Fiscal Responsibility Index : Korea

Pillar	Main Items of Best Practice	Application to Korea	Evaluation
Fiscal Responsibility	- Review of fiscal framework(15%) - Debate long-term Sustainability(15%) - Structured Budget debates(20%) - Top-Down Budgeting Approach(50%)	Debates but does not approve fiscal framework changes Fiscal risk reports received but not debated No structured pre-budget debate No top-down aggregate vote before allocations	Weakest
Budget Approval	- Through Review of Budget Proposal(20%) - Comprehensive budget documentation(20%) - Power to Amend Budget(20%) - Approve budget before fiscal year(40%)	Budget submitted 3+ months before fiscal year Comprehensive docs incl. off-budget items Sectoral cuts are binding on Budget Committee(SCBA) Approved before start of fiscal year	Strength
Budget Implementation & Audit	- Approve significant in-year changes(33%) - Review interim Financial Reports(33%) - Review of Supreme Audit Reports(33%)	Supplementary budgets require legislative approval No formal review of interim financial reports No formal process linking audit findings to next budget	Mixed
Committee Organization	- Maintain a Budget committee(72%) - Sectoral committees review(18%) - Citizen engagement in budgeting(10%)	A single Budget committee coordinates a process in which sectoral committees make recommendations Sectoral committees review performance info Committee meetings generally open to public	Strength
Analytical Resources	- Access to Expert Budget Analysis(22%) -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58%) - Control over own budget(22%)	NABO: establishe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i>Legislature prepares its own budget independently of the executive</i>	Strength

Reform of Budge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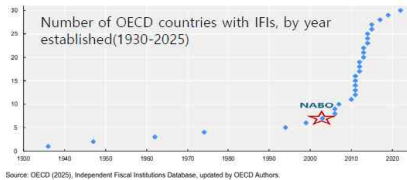
Decide the fiscal ceiling first — then allocate within it.

- From Bottom-Up to Top-Down Set the fiscal envelope first. Then review the details within it.



NABO's Role in Strengthening Fiscal Responsibility

Growth of IFIs in OECD countries



Country	Institution name	Staffing (FTE)
Australia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35
Austria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7
Canada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41
Greec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7
Ireland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10
Italy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5
Kore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138
Monaco	Center for Public Finance Studies (CEFP)	60
Portugal	Technical Budget Support Unit (UTAU)	6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284

Note: Number of analytical and corporate secretariat staff, excluding their or head of institution and other council/board members.
Source: OECD (2021),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atabase.

NABO at a Glance

- Established in 2003 — among the early movers in the global IFI wave
- One of the largest parliamentary budget offices in the OECD, with 130+ staff

NABO's Role in Fiscal Responsibility

- Independent long-term fiscal projections to support multi-year budget frameworks
- Analytical backbone for top-down budget reform

Thank You!



**18th Annual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18e Réunion Annuelle du Groupe de travail des responsables
budgétaires des parlements et des institutions budgétaires
indépendantes**

Paris, France
27-28 May 2026

LIST OF PARTICIPANTS

Chair: **Mr. Mark HADLEY**, United States

Australia/Australie

Ms. Katharine HILL	<i>Former Chief of Staff New South Wales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Ms. Sam REINHARDT	<i>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Mr. Xavier RIMMER	<i>Parliamentary Budget Officer Victorian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Austria/Autriche

Ms. Kristina FUCHS	<i>Head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 Austrian Parliament</i>
Dr. Johannes HÖLLER	<i>Senior Economist Austrian Fiscal Advisory Council - c/o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i>

Belgium/Belgique

Mr. Geert LANGENUS	<i>Advisor Economics and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Bank of Belgium</i>
---------------------------	---

Mr. Igor LEBRUN

*Head of Macroeconomics and Public
Finance Department
Federal Planning Bureau*

Mr. Rik VANHAUTEGHEM

*Communication Advisor
Federal Planning Bureau*

Canada

Mr. Jeffrey NOVAK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Ms. Victoria COSTE

*Director of Operations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 of
Ontario*

Chile/Chili

Ms. Paola CABELLO

*Head of the Senate Budget
Information, Analysis and Advisory
Office
Senate of Chile*

Czechia/Tchéquie

Mr. Mojmír HAMPL

*Chairman
Czech Fiscal Council*

Ms. Klara IBRAHIM

*Advisor & Coordinator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Chamber of Deputies of the Czech
Republic Parliament*

Denmark/Danemark

Mr. Niels Lynggård HANSEN

*Managing Director
Danish Economic Councils*

Mr. Mads Rahbek JØRGENSEN

*Senior Advisor
Danish Economic Councils*

Ms. Birgitte LANGE

*Senior Economic Policy Advisor
Danish Parliament*

Ms. Kathrine LANGE

*Senior Advisor
Danish Parliament*

Estonia/Estonie

Dr. Karin JÕEVEER	<i>Member of Estonian Fiscal Council Estonian Fiscal Council</i>
Mr. Lauri PUNGA	<i>Economist Estonian Fiscal Council</i>
Ms. Kai RAUDKIVI	<i>Advisor Chancellery of the Riigikogu</i>

Finland/Finlande

Ms. Jenni JAAKKOLA	<i>Secretary-General Finnish Economic Policy Council</i>
Mr. Olli KANNAS	<i>Economist Research Service Parliament of Finland</i>

France

Mr. Nicolas CARNOT	<i>Rapporteur général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i>
Mr. Alexis GATIER	<i>Rapporteur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i>
Mme Mélanie GIROUX	<i>Cheffe de service Sénat</i>
Mr. Julien ROBINEAU	<i>Coordinateur des travaux du rapporteur général Sénat</i>

Greece/Grèce

Ms. Anastasia MIAOULI	<i>Chair Hellenic Fiscal Council</i>
Mr. John TSOUKALAS	<i>Head of the Hellenic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Mr. Angelos KANAS	<i>Membe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Hellenic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Ms. Marina SPALIARA	<i>Membe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Hellenic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Hungary/Hongrie

Mr. Gábor HORVÁTH

*Chair
Hungarian Fiscal Council*

Iceland/Islande

Mr. Jón MAGNÚSSON

*Head of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
Parliament of Iceland*

Ireland/Irlande

Ms. Annette CONNOLLY

*Director
Parliamentary Budget Office
Houses of the Oireachtas*

Ms. Denise O'CONNELL

*Deputy Director
Parliamentary Budget Office
Houses of the Oireachtas*

Mr. Akisato SUZUKI

*Senior Economist
Parliamentary Budget Office
Houses of the Oireachtas*

Mr. Seamus COFFEY

*Chair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Mr. Niall CONROY

*Acting Chief Economist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Israel/Israël

Mr. Shmulik HIZKIYA

*Head of Information Division & Chief
Knowledge Officer
The Knesset*

Mr. Eliezer SCHWARTZ

*Economic Team Leader
Department of Budget Control
The Knesset*

Italy/Italie

Ms. Lilia CAVALLARI

*President
Parliamentary Budget Office*

Ms. Paola BONACCI

*Head of the Monitoring Centre on Public
Finance
Chamber of Deputies*

Ms. Chiara GORETTI

*Council Member
Parliamentary Budget Office*

Korea/Corée

Ms. ChiEun CHEO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Analysi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Ms. So Jung HWANG

*Economic Analys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Ms. Eunjung KANG

*Economic Analys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Latvia/Lettonie

Mr. Jānis PRIEDE

Head of the Fiscal Discipline Council

Mr. Normunds MALNAČS

*Council Secretary
Fiscal Discipline Council*

Ms. Aiva VĪKSNA

*Member of Parliament
Parliament of Republic of Latvia*

Lithuania/Lituanie

Ms. Jurga RUKŠENAITE

*Head of the Fiscal Monitoring Centre
National Audit Office*

Luxembourg

Mme Anouk SCHROEDER

*Economist
Conseil national des finances publiques*

Mexico/Mexique

**Mr. Erick Xocoyotzin GÓMEZ
GONZÁLEZ**

*Head of the General Directorate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Finances*

Netherlands/Pays-Bas

Mr. Eric WIEBES

*State Councillor
Council of State*

Mr. Martin MELLENS

*Senior Economist
Council of State*

Ms. Suzanne MEIJER

*Economist
Council of State*

Ms. Rosalie VAN ONZENOOT	<i>Economist Council of State</i>
Mr. Niels DONKER	<i>Team Lead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 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i>
Dr. Pieter HASEKAMP	<i>Director CPB - Netherlands Bureau of Economic Policy Analysis</i>

Norway/Norvège

Mr. Arve SKULAND	<i>Special Advisor Research Service Stortinget</i>
-------------------------	--

Poland/Pologne

Dr. Sławomir DUDEK	<i>Chair Polish Fiscal Council</i>
Ms. Marta BARAŃCZAK	<i>Secretary Polish Fiscal Council</i>
Ms. Olga OLKOWSKA	<i>Public Finance Specialist Bureau of Research Chancellery of the Sejm of the Republic of Poland</i>

Portugal

Ms. Patrícia SEMIÃO	<i>Executive Member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i>
Dr. Sofia TERLICA	<i>Head, Portuguese Parliamentary Budget Office</i>
Ms. Sara RISCADO	<i>Economic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Portugal to the OECD</i>

Slovak Republic/République slovaque

Mr. Jan TÓTH	<i>Chair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i>
Mr. Viktor NOVYSEDLÁK	<i>Executive Director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i>

Slovenia/Slovénie

Mr. Tomaž PERŠE *Council Member
Slovenian Fiscal Council*

Spain/Espagne

Mr. Juan Manuel ANDRÉS JOVANI *Head of the Economic and Budgetary
Analysis Department
Congress of Deputies*

Mr. Andrés MARTÍNEZ GONZÁLEZ *Economist
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

Sweden/Suède

Mr. Niklas FRANK *Head of Agency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Mr. Mikael HEMLIN *Senior Economist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Switzerland/Suisse

Mr. Franz LEUTERT *Secretary
Finance Committee
Swiss Parliament*

Türkiye

Mr. Mustafa ÇELİK *Legislative Exper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Mr. Yılmaz GÜLER *Strategy and Budget Expert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Mesut KARAKILÇIK *Deputy Head of the Budget
Departmen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Mr. Metin MUZOĞLU *Strategy and Budget Expert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Mr. ABDULLAH YELMER *Legislative Expert
Grand National Assembly of Türkiye*

United Kingdom/Royaume-Uni

Mr. Tom JOSEPHS	<i>Member of the Budget Responsibility Committe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i>
Ms. Laura GARDINER	<i>Chief of Staff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i>
Ms. Jessica GWYHER	<i>Senior Fiscal Analyst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i>
Mr. Alex KNIGHT	<i>Head of Financial Scrutiny Unit House of Parliament</i>
Mr. Jonathan MCADAMS	<i>Chief of Staff Northern Ireland Fiscal Council</i>
Mr. Nathan MULHOLLAND	<i>Research Officer Public Finance Northern Ireland Office</i>
Ms. Nicola HUDSON	<i>Head of Research and Financial Scrutiny 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SPICe)</i>
Ms. Rachel COOK	<i>Senior Financial Researcher 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SPICe)</i>
Ms. Justine RICCOMINI	<i>Commissioner Scottish Fiscal Commission</i>
Dr. Eleanor RYAN	<i>Commissioner Scottish Fiscal Commission</i>
Ms. Claire MURDOCH	<i>Head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Public Funding Scottish Fiscal Commission</i>
Mr. Christian TIPPLES	<i>Senior Researcher, Financial Scrutiny Unit National Assembly for Wales</i>

United States/États-Unis

Mr. Mark HADLEY	<i>Deputy Director Congressional Budget Office</i>
Ms. Taina GUARDA	<i>Chief Outreach and Engagement Officer 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i>

EU/UE

Mr. Antonino BARBERA MAZZOLA	<i>Economist European Fiscal Board</i>
Mr. Harry CRICHTON-MILLER	<i>Secretariat Network of EU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
Ms. Beatriz POZO PÉREZ	<i>Secretariat Network of EU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
Mr. Oskar GREVESMÜHL	<i>Economic Analyst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i>
Mr. Darren NEVILLE	<i>Head of Budgetary Support Unit European Parliament</i>
Mr. Étienne SAIL	<i>Head of Expenditure Analysis Unit Directorate-General for Budgetary Affairs European Parliament</i>

Brazil/Brésil

Mr. Fernando RAMALHO BITTENCOURT	<i>Senior Advisor Federal Senate of Brazil</i>
Mr. Daniel COURI	<i>Budget Advisor Federal Senate of Brazil</i>
Mr. Alexandre Augusto SEIJAS DE ANDRADE	<i>Director Brazilian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i>

Bulgaria/Bulgarie

Mr. Lyubomir DATZOV	<i>Member Bulgarian Fiscal Council</i>
----------------------------	--

Croatia/Croatie

Dr. Sandra KRTALIĆ	<i>President Croatian Fiscal Policy Commission</i>
Mr. Željko HANZL	<i>Senior Economist Croatian Fiscal Policy Commission</i>

Romania/Roumanie

Mr. Daniel DĂIANU	<i>President Romanian Fiscal Council</i>
Mr. Bogdan CĂPRARU	<i>Member Romanian Fiscal Council</i>

Chinese Taipei/Taipei chinois

Ms. Sui Mei CHIANG	<i>Researcher Legislative Yuan</i>
Ms. Yi-Ling LIU	<i>Associate Researcher Legislative Yuan</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FMI)

Mr. Alessandro GULLO	<i>Assistant General Counsel</i>
-----------------------------	----------------------------------

Experts

Ms. Valerie CIFUENTES	<i>Co-founder Economía para la pipol, Colombia</i>
Ms. María Camila GONZÁLEZ	<i>Co-founder Economía para la pipol, Colombia</i>
Dr. Joachim WEHNER	<i>Associate Professor in Public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i>
Professor Michael McMAHON	<i>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i>

OECD/OCDE

Mr. János BERTÓK	<i>Deputy Director of Public Governance Email: Janos.BERTOK@oecd.org</i>
Mr. Jón BLÖNDAL	<i>Head of Budgeting and Public Management Email: Jon.BLONDAL@oecd.org</i>
Ms. Scherie NICOL	<i>Senior Policy Analyst & Lead – Parliament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mail: Scherie.NICOL@oecd.org</i>

Dr. Eddie CASEY

Senior Economist
Email: Eddie.CASEY@oecd.org

Mr. Ben WESTMORE

Senior Economist
Email: Ben.WESTMORE@oecd.org

Mr. Youngjun HWANG

Policy Analyst
Email: Youngjun.HWANG@oecd.org

Ms. Jennifer SHEAHAN

Policy Analyst
Email: jennifer.SHEAHAN@oecd.org

Ms. Kaitlyn VANDERWEES

Policy Analyst
Email: Kaitlyn.VANDERWEES@oecd.org

Mr. Corey STEINHOUSE

Project and Event Coordinator
Email: Corey.STEINHOUSE@oecd.org